



대구면 구수리 구곡마을 회관 앞에서 윤영관 대구면장(왼쪽)이 김정길 구곡마을 이장에게 벽시계를 전달하고 있다.

벽시계에 고향사랑 가득 담아~

강진 '광주금방' 위성식 사장·마을회관 303곳 전달

강진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50대 사업가가 300여개 전 마을회관에 벽걸이 시계를 기증하는 등 고향사랑을 실천, 눈길을 끌고 있다.

주인공은 강진읍에서 '광주금방'을 운영하는 위성식(53 사진 원내) 사장.

위 사장은 최근 11개 읍면사무소와 관내 292개 마을회관 등 모두 303곳에 최신형 전자 벽걸이 캘린더 시계(시가 3천500만원 상당)를 기증했다. 위 사장이 기증한 시계는 절기와 습도, 온도 등이 함께 표시돼 영농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위씨는 이번 선행 말고도 1995년부터 시력이 나쁜 불우 청소년과 노인들에게 안경과 들풀보기를 무료로 제공하고 매년 수백명에게 시력검사를 해주는 등 지역사랑을 실천해왔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여군도 이젠 제 뜻을 해야 할 때"



여군 창설 국방장관 표창

헬기 조종사 안선영 소령

"이제 여군도 양적, 질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있는 만큼 여성이라는 성(性)의 영역에서 벗어나 체력이나 전투지식 등에서 남성 못지 않은 제 뜻을 해야 할 때입니다."

오는 6일 여군 창설 제56주년을 맞아 여군의 위상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5일 국방장관 표창을 받게 된 강선영(여·40) 소령은 군내 여군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강 소령은 현재 헬기 조종사로 육군 항공작전사령부에서 시누크(CH-47) 헬기 중대장을 맡아 6대의 시누크 헬기와 12명의 조종사를 이끌고 있다.

탤런트 류진 결혼

광주·전남중기청 김성현씨

내달 29일 이혜선씨와

천연염색 국제전 참가

탤런트 류진
트 류진
(33) 이
10월 29
일 오후
1시 신라
호텔 다
이 너스
티홀에서 이혜선(27) 씨와 백년
가약을 맺는다.

드라마 '내 사랑 누글까' '여름
향기' '오플승 봉순영' '서동요'
'진짜 진짜 좋아해'에 출연해 잘
생긴 외모로 사랑받은 류진은
2000년 지인의 소개로 모향공사
에 재직중인 이씨를 만나 지금까
지 교제해왔다.

내방
▲이승연 광주시교육위원회 의
장 ▲전원범 부의장

여군 창설 국방장관 표창
헬기 조종사 안선영 소령

"이제 여군도 양적, 질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있는 만큼 여성이라는 성(性)의 영역에서 벗어나 체력이나 전투지식 등에서 남성 못지 않은 제 뜻을 해야 할 때입니다."

오는 6일 여군 창설 제56주년을 맞아 여군의 위상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5일 국방장관 표창을 받게 된 강선영(여·40) 소령은 군내 여군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강 소령은 현재 헬기 조종사로 육군 항공작전사령부에서 시누크(CH-47) 헬기 중대장을 맡아 6대의 시누크 헬기와 12명의 조종사를 이끌고 있다.

문화예술위, 우수문화예술지 선정

'문화들'이 주목받는 이유는 지역에서 출판되는 문예지로는 드물게 창간 1년도 되지 않은 지난 6월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우수문화예술지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우수문화예술지에 들게 되면 한 해에 500만원, 즉 1년에 2천500만원을 지원받는다.

전국 200여개의 문예지 중 올해는 모두 37개의 잡지가 뽑혔다. 광주에서는 '문화들' 외에 시

전문 문예지 '시와사람'도 선정됐다.

고 주간은 "사실 잡지를 만드는 우리도 이렇게 빨리 반응이 올 줄은 몰랐다"며 "문화들"을 처음 접한 중앙의 관계자들이 "시골 무시할 것 끝이되다"는 말을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서울 사람들도 놀랄만한 잡지를 단시간에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한국 최고의 필진을 모신다'는 원칙을 지켰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놀랐다.

창간호의 권두산문을 쓴 작가는 소설가 박상룡이었고, 대답은 조경래였다. 고 주간은 "광주에서 발행되는 문예지지만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좋은 글'을 실으려 했다"며 "중앙의 '잘 나가는' 문예지보다 원고료가 조금 낮다는 것을 먼저 말한 뒤 글을 써달라고 협박(?) 수준의 부탁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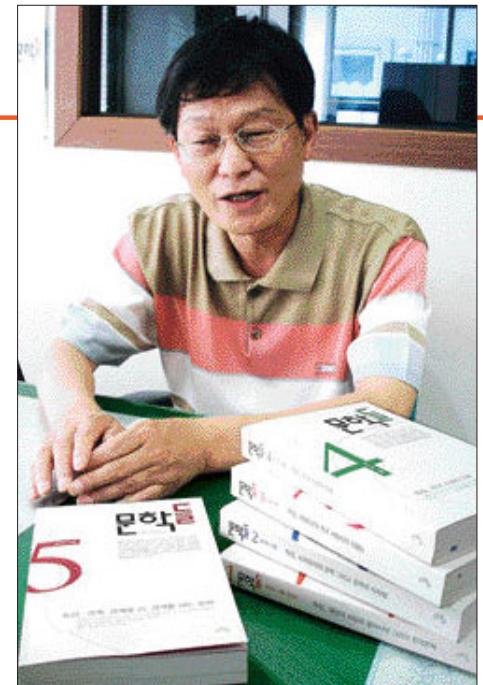
"문예지 한 호를 만드는데 제작과 배송 등에

600만원, 원고료 600만원 등 모두 1천200만원 가량이 듭니다. 발행인인 송광룡 사장이 제작부분은 책임지고, 나머지는 광고와 30여명의 편집 인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 등으로 해결했죠."

지역 작가들에 항상 문호 개방

고 주간은 신생 잡지인 만큼 창간 초반 어느 기간 동안은 재정적 어려움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문예진흥기금을 받게되면서 이 문제를 일정부분 해결할 수 있었다.

기금은 최근 출간된 가을호(5호)부터 받게 된다. 고 주간의 이같은 노하우와 추진력은 하루 아침에 생긴 것은 아니다. 올해로 창간 10주년을 맞는 시 전문 문예지 '시와사람'에서 편집위원과 주간으로 6년 가량 일했던 경험이 컸다.



시와 소설 단행본 출간도 준비 중인 고 주간은 "좋은 글을 쓰는 지역의 작가들에게도 언제든지 '문화들'의 문은 열려있다"며 "상상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은 새로운 주제로 삶과 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잡지를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8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광주YMCA에서 '문화들' 창간 1주년 기념식이 열린다.

/글·사진=정성필기자 camus@

"문화수도 대표적 문예지로 남고파"

"문화도시라면 대표 문예지 품은 있어야죠." 이번 달로 창간 1주년을 맞은 종합문예지 '문화들'의 고재종(50·사진) 편집주간은 지난 4일 광주시 남구 양립동 사무실에서 "지역 문예지라는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 작가 선정에서 원고료 지급까지 꼼꼼한 대처를 유지해왔다"며 지난 1년을 되돌아봤다.

고 주간은 "사실 잡지를 만드는 우리도 이렇게 빨리 반응이 올 줄은 몰랐다"며 "문화들"을 처음 접한 중앙의 관계자들이 "시골 무시할 것 끝이되다"는 말을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서울 사람들도 놀랄만한 잡지를 단시간에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한국 최고의 필진을 모신다'는 원칙을 지켰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놀랐다.

창간호의 권두산문을 쓴 작가는 소설가 박상룡이었고, 대답은 조경래였다. 고 주간은 "광주에서 발행되는 문예지지만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좋은 글'을 실으려 했다"며 "중앙의 '잘 나가는' 문예지보다 원고료가 조금 낮다는 것을 먼저 말한 뒤 글을 써달라고 협박(?) 수준의 부탁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문예지 한 호를 만드는데 제작과 배송 등에

'청각장애' 거포 장왕근 다시 날다

실의 딛고 11월 세계 장애인야구대회 도전

청각 장애를 딛고 야구 선수 꿈을 키우다 날개가 잠시 꺾인 '거포' 장왕근(20·총주 성심학교 졸업)이 신체 장애인들의 야구 월드컵에 도전한다.

장왕근은 지체장애인 선수들이 주축이 된 한국팀 일원으로 오는 11월 4~5일 일본 고베에서 열리는 제1회 세계 신체장애인 야구대회에 출전한다.

장애인 이용시설인 정립회관의 주선으로 성사된 이번 대회에는 장왕근과 같은 충주 성심학교 졸업생인 이종한이 특별 초청됐고 나머지는 소프트볼을 했던 지체장애인 선수 등 총 15명으로 선수단을 꾸렸다. 야구 종주국인 미국과 개최국 일본, 리바이벌 대만 등 총 4개 팀이 리그전을 벌여 승패와 점수 득실에 따라 세계 최강자를 가린다.

스페셜올림픽에 야구 종목이 없어 한국 장애인 야구팀 사상 국제 무대에 첫 선을 보이는 '외인구단'의 사령탑에는 장왕근의 은사인 박상수 성심학교 야구팀 감독이 선임됐다.

장왕근은 지난 2002년 9월 국내 최초 청각장애인 야구팀으로 창단된 성심학교가 배출한 장거리 타자다.



그는 장애의 불편함과 사회의 편견을 뛰어 넘어 봉황대기 등 전국 대회에 출전하며 야구를 향한 강한 열정으로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심어줬고 2004년에는 '아름다운 플레이터' 서울 대회에서 최선 경기에서 희망의 홀런포를 쏘아올리기도 했다.

'희망 전도사'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장왕근은 그려나거나 최근 좌절을 맛보고 지금은 진로를 고민하고 있다.

지난 12월 성심학교 졸업 후 간사용(49) 감독이 이끄는 청단팀 국제 디지털대에 입학했지만 열악한 환경의 현실 벽에 막혀 지난 4월 선수 생활을 접고 대전 집에 머물고 있다.

현대삼호重 '모기업-협력업체 협약' 체결



광주지방노동청 목포지청(지청장 박덕희)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교열)는 5일 목포 현대호텔에서 현대삼호증공업(주)과 '모기업-협력업체 상생협력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0-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화족

▲김철영씨 차남 원태군 정두영(광주 중부의원장)씨 장녀 혜원(아시아나 항공)양=9일(토) 오후 1시 신양파크호텔 그랜드홀.

▲하홍범씨 장남 성국군 박종철(성암국제수련원·천문대)씨 장녀 은지양=9일(토) 낮 12시 센트럴호텔.

▲노회행(전남지방경찰청 항공대장)씨 장남 광일(공군교육 연구원)군 윤도중씨 차녀 혜영양=10일(일) 오후 1시 20분 예별루션웨딩컨벤션 2층 라벤더홀.

▲신복진(담양대 나무골테마공원·전 언론인)씨 차남 광호(남도일보 사진부 차장)군 김유진(동성종합건설 이사)씨 차녀 정현(광주매일 디자인팀)양=10일(일) 오후 1시40분 메리어트웨딩홀 1층 에메랄드홀.

알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인권상담=월~금 오전9시~오후5시, 국번 없이 1331

▲번호자 공재원 법률사무소 토요 무료법률상담=매주 토요일 오전9시~오후1시 사무실 223-2100

▲비둘기기장 폭력상담소 무료상담=가정 폭력·성폭력·학교폭력 등 각종 상담, 직접 상담은 전화나 메일로 사전예약 매주 목·금요일. 652-1366, nam9939@dreamwiz.com

▲(사)이주가족복지회 긴급지원 및 상담=동남아 결혼이민자나 가족들 대상으로 상담 및 문화강좌. 363-2963, www.ejufamily.com 문화강좌는 월·금 오전 10시~낮 12시, 수 오전 10시~오후 3시(점심 제공)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무료 금연교육 및 금연실천자 관

동장·동문화

▲북성중 제 6회 동창회(회장 강대식) 월례회=6일(수) 오후 6시30분 등미루, 521-1500

▲북성중 제 7회 동창회(회장 김권수) 월례회=7일(목) 낮 12시 담양군 용면 태옹산장. 061-383-0300

▲전남대 총동창회(회장 조국현) 집행위원회=7일(목) 오후 6시30분 미연한정식. 528-9946

▲광고 제7회 동창회(회장 천경종) 모임=7일(목) 오후 6시30분 동창회 사무실.

▲북성중 제 9회 동창회(회장 장수강) 모임=9일(금) 오후 6시30분 대전 동성호텔 10층. 042-222-4488

종친회

▲평강채씨 광주·전남 청장년회 수상 인명 구조원 일반과정 교육생 모집=만 18세 이상 기본 영법 200m 가능자. 접수는 9월 오후 2시까지

지사 홈페이지(<http://gawngju.redcross.or.kr>) 문의 521-0545.

▲전남도 광양평생교육관 고입검정 시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성인상 고입 검정고시 준비생 모집. 12월부터 3개월간 6과목 운영. 문의 061-794-5681~3

▲의성김씨 광주전남 청년회(회장 김원상) 모임=12일(화) 오후 7시 만수회관. 223-1688

▲의성김씨 광주전남 청년회(회장 김원상) 모임=12일(화) 오후 7시 만수회관. 223-1688

▲광주민속박물관대학 수강생 모집=9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5시, 판소리·민요·시나위·산조농악 등 국악강좌 운영. 수강료 무료(교재비 1만원). 13일까지 접수. 521-9041

▲남구례고교육센터 교육생 모집=베이비집(12~48개월)·스킬과정(5~7세)·테크닉과정(초등~중2년)·로봇과정(초등 2년 이상·중학생) 교육생 모집. 봉선동 삼익2차 APT 옆. 문의 654-4113